

요하문명과 고조선의 실체

김채수*

chaesu@korea.ac.kr

Contents

- I 서론
- II 본론
 - 2.1 기존의 ‘고조선’ 연구
 - 2.2 요하문명의 출현경위
 - 2.3 기자조선과 ‘고조선’의 실체
- III 결론

Abstract

本論文は‘古朝鮮’の实体的解明を目的とする。筆者はその目的を果たすに当たってこれまでのナショナリズムの視角やリジョナルリズムの視角の限界を克服するための一方策としてグローバリズムの立場をとって南の黄河文明、中央アジアのアルタイ文明、西アジアのメソポタミア文明などに関連させて遼河文明を背景にして成立した‘古朝鮮’の实体的解明を試みた。その結果は次のように整理されることができる。

筆者はこれまでのナショナリズムの視角やリジョナルリズムの視角の限界を克服するための一方策としてグローバリズムの立場をとって南の黄河文明、中央アジアのアルタイ文明、西アジアのメソポタミア文明などに関連して遼河文明を背景にして成立した‘古朝鮮’の实体的解明を試みた。その結果は次のように整理されることができる。

‘檀君朝鮮’は西アジアのメソポタミア地方、中央アジアのアルタイ地域などから初期青銅器文化が伝播され、それが遼河地域での前期青銅器文化（2500～1200、BC）に定着していく過程で成立してきた。民族的にはそれがアルタイ山脈・ハンガウイン山脈以北のバイカル湖・黒龍江・松花河流域等の出身の熊トーテム民族である穢族を先住民にして、南シベリアに位置している東アジア・アルタイ地域・モンゴル地域などへと繋がっている北方草原地帯の草原路を通じて伝播された初期青銅器文化の洗礼を受けて形成された 貂族 を侵入勢力として形成された人間集団であったと考察される。政治的には、それが西側の遊牧民出身であった貂族を支配民族にして、先住民の狩猟・漁撈民であった穢族を被支配民族にして、前期青銅器文化が形成された時点、すなわち『三国遺事』の著者一然が言った紀元前2300年頃を前後して建立された古代国家であったと考察される。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古朝鮮’は、全期の‘檀君朝鮮’と後期の‘穢貊朝鮮’に両分される。前期の‘檀君朝鮮’は、大同江流域の平壤地域で形成されたのではなく遼河地域の大凌河の上・中流域に位置する朝陽一帯で出現した政治的団体であると把握される。だから、その政治的中心地は大凌河上流にある牛河梁遺跡の近くに住んでいた熊トテム民族を軸にして朝陽一帯で形成され、中原地域で夏(成立2070年頃)が設立される以前に遼河地域の滦河下流の白岳山地域に南下していたものと考察される。その後、‘檀君朝鮮’は、中原地域で紀元前18世紀頃に遼河地域から南下した東夷族が建国した商王朝(1766~1122、BC)と長期間南北に並立して行った。そうしていくうちに商が西アジアからの鉄器文化の伝播を背景にして中原地域で出現した華河族が商を崩し周王朝(1122~256、BC)を設立した。それがきっかけになって、中原文化が遼河地域へと北進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ような政治的状況に法って、‘檀君朝鮮’の場合も再び原出現地である朝陽一帯へと戻っていくことになった。‘檀君朝鮮’は朝陽地区の近くの藏唐京、つまり今の阜新という地域に政治的な中心地に移転させた。‘古朝鮮’はこのような政治的中心地の移動を契機として、‘檀君朝鮮’より‘穢貊朝鮮’に転換した。このような転換は貊族を支配層とした‘檀君朝鮮’の政治的中心地が当時穢族の居住地であった中流と遼河中流の間に位置していた藏唐京地域への北上をきっかけにして行われたものだった。‘穢貊朝鮮’は、その地域で滦河の下流地域にある箕子朝鮮と近10世紀間対峙していた。そうしていくうちに、それは最終的に漢武帝が箕子朝鮮の後身衛滿朝鮮を滅亡させた、その翌年である07年に滅亡したものと考察される。

このように‘古朝鮮’は遼西地域で前期青銅器文化が形成していく過程で、‘檀君朝鮮’という形で、紀元前2300年頃に遼河地域の大凌河の上・中流域で出現した。それでまたそれは、中原地域における商・周の交替期には、それが大凌河の中流域と遼河中流の間の藏唐京地域で‘穢貊朝鮮’に転換していき滦河の下流地域の箕子朝鮮と対峙して行ったものと考察されているのだ。

Key Words : 古朝鮮、檀君朝鮮、箕子朝鮮、檀君神話、『古事記』神話、縄文土器、那珂道世
(Old Chosun, Tankun Chosun, Kiza Chosun, Tankun Myth, Kojiki Myth, Jomon Earthenwarw, Michiyo Naka)

I. 서론

본 연구는 ‘고조선’의 실존근거, ‘고조선’의 정치적 형태, ‘고조선’의 정치적 중심지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조선’의 실체를 규명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조선’이란 말이 최초로 등장한 문헌은 일연의 『삼국유사』(1280년대 말엽)이다. 이 문헌에서의 ‘고조선’은 천신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왕검에

의해 세워진 국가로 기술되어 있다. 이 경우 우리는 그 국가를 건설한 단군왕검이 현재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그가 세웠다고 하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디까지나 신화나 전설상으로는 존재했었던 나라였지 실존했던 나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고조선’의 실존성의 문제와 관련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고조선’에 관한 그러한 기사가 들어 있는 『삼국유사』가 쓰인 시대가 신화와 역사가 미분화(未分化)되어 있던 중세시대였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 신화와 역사가 분리되기 시작된 것은 1857년 다윈의 생물진화론이 제기됨으로써였다 할 수 있다. 이 생물진화론의 출현은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조상이 원숭이나 신이냐의 문제에 대해 양자택일을 강요케 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생물진화론이 제시한 세계관에 입각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고조선’에 대한 연구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러한 세계관에 입각해 주로 세 분야에서 행해져 나왔다. 우선 한 분야는 근대 이후에 성립된 신화연구 차원에 입각해 행해진 단군신화를 통한 ‘고조선’연구이다. 신화연구자들에게의 ‘고조선’이란 천신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왕검이라는 신적 존재가 건설한 국가이다. 따라서 그들에게의 ‘고조선’은 실제적 파악이 불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된 존재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학 분야에서의 연구이다. 근대 이후 신화로부터 독립해 나온 역사학 분야에서의 ‘고조선’은 한국 민족이 건설한 최초의 국가로 인식되어 나왔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국가였는지 간에 그것을 건설한 자는 신적 존재가 아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행해지는 연구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건립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다시 말해 그는 어떤 종족의 인간이었으며, 또 그가 거느리던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었는가 등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나머지 하나는 고고학 분야에서의 연구이다. 그것은 ‘고조선’이 신이 아닌 어떤 한 집단의 정치적 수장이나 혹은 어떤 한 민족 집단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남긴 유적이거나 유물을 찾아내 그것들을 가지고 당시 그들의 생활상을 파악해 보는 작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상기와 같은 측면에서의 ‘고조선’에 대한 실제적 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조선’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었다. 우선 하나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적 시각에서의 접근이다. 즉 근대 이후 ‘고조선’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민족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글로벌시대로 들어와 그것이 리저널리즘(Regionalism)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고조선’이 출현한 요하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사회에 대한 연구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 지구적 시각에서 민족이나 인류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삶을 실현해가고, 또 그러한 시각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할 그러한 시대에 처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간들에게서의 모든 연구는 글로벌리즘적 차원의 접근이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여기에서 종래의 내셔널리즘적 시각이나 리저널리즘적 시각들로부터의 접근을 지양하고 글로벌리즘적 시각에서 ‘고조선’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지금까지의 ‘고조선’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식으로 행해져 왔는가를 고찰해보고, 그 다음으로 기존의 내셔널리즘적 시각과 리저널리즘적 시각에 입각한 ‘고조선’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해본다는 취지에서 글로벌리즘적 입장을 취해 남쪽의 황하문명, 중앙아시아의 알타이 문명,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문명 등과 관련시켜 ‘고조선’의 실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2.1 기존의 ‘고조선’연구

2.1.1 민족주의적 시각에서의 ‘고조선’연구

근대 이후의 ‘고조선’연구는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동아시아유교문화권의 세계가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8)을 기점으로 서구의 근대산업주의와 제국주의를 모델로 근대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였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러한 근대화 과정에서 1910년을 기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다. 일본의 메이지정부는 그러한 근대화 과정에서 막번제(幕藩制) 봉

건주의국가로부터 천황을 권력의 정점에 둔 근대천황제 국민주의 국가로 전환해 나와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신격화되어 있는 한국민족의 정치적 지도자의 원조를 부정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그 방책의 하나로 근대천황제 국민주의에 입각해 한국민족의 정치적 지도자의 원조로 알려진 단군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가 건설했다고 하는 단군조선의 존재를 부정해 가게 된다.

일제의 그러한 정책은 일제가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 1889.2)과 ‘교육칙어’(教育勅語, 1890.10)를 제정 공포해 국민들에게 천황을 신격화시키려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다. 일제에게서의 천황의 신격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한층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나갔다. 하나는 일본에서 1877년 도쿄대학(1886년부터 제국대학)을 중심으로 미국인 교수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Edward Sylvester Morse, 1838~1926)를 통해 진화론이 소개되었다. 그 후 그것이 1880~90년대에 걸쳐 당시 일본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천황의 학술고문이었고, 또 도쿄제국대 총장을 역임한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 등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1857년에 발표된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진화론과 그것에 근거한 인수동조설(人獸同祖說)이었다. 그 후 헐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 등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같은 해에 『진보, 그 법칙과 원인』 *Progress, Its Law and Cause*을 출판해 사회진화론을 주창했다. 당시 일본에서의 진화론에 대한 관심은 다윈의 생물진화론이나 인수동조설 보다는 사실상 사회진화론 쪽에 기울어 있었다. 인수동조설과 같은 진화론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천황은 인간이고 현인신(現人神)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아야한다. 그런데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천황이 현인신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제는 크리스티교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서구열강과 대결해가는 과정에서 ‘대일본제국헌법’과 ‘교육칙어’를 제정해 공포하였다. 또 일제는 서구의 물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윈의 생물진화론과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소개됨에 따라 한·중·일 신화와 역사를 새로운 차원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일본의 연구자들에게 있어 일본의 기기(記紀)신화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한국의 ‘단군신화’와 중국의 ‘삼

황오제신화' 등은 어디까지나 신화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러한 차원에서 행해진 첫 시도가 일본 역사학계에서 1894년에 '동양사'(東洋史)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동양사학자 나카 미치요(那珂道世, 1851~1908)에 의해 행해졌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 그의 『지나통사』(支那通史, 1888~1890, 4권 5책)는 한문으로 저술되어 중국에서도 번역본이 통용되었다. 또 그는 『사학잡지』(史學雜誌, 제5집, 1894년)에 『조선고사고』(朝鮮古史考)를 게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가 단군신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일부 학자들에게 단군조선이 알려지게 되면서 비로소 일본인들에 의해 단군신화가 논의되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근대 일본인들에게는 일본의 역대 천황들과 당시의 메이지천황을 제외하고는 이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모두 신적 존재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신격화되어 왔던 한국민족의 정치적 지도자의 원조로 알려진 단군과 같은 존재 또한 신적 존재로 인식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근대일본인들에게 단군왕검이 역사적 인물로 인식될 리도 없었다. 그들에게 단군왕검은 어디까지 신화 상의 존재로 밖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일제의 단군과 단군조선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조짐은 특히 청일전쟁(1894~1895)에서의 승리를 통해 요동반도를 획득한 이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의 그러한 입장이 본격화된 것은 일제가 한국에 총독부를 설치해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다스리기 시작한 1910년 이후부터였다. 그 이후부터 일제는 그동안 한국에서 역사적 인물로 받아들여졌던 단군을 신화 상의 존재로만 인정하였고, 또 그가 건설한 단군조선도 신화 상의 국가로만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자 최남선, 신채호, 정인보 등과 같은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민족(韓民族)의 입장에서 일제의 그러한 입장에 반대해 1926년부터 단군이 역사적 인물이고, 단군조선이 실재했던 왕조였다는 입장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²⁾

1) 나카 미치요는 그의 유고집(遺稿集) 『那珂道世遺書』(1915)속의 『第八章朝鮮 樂浪帶方考』에서 “檀君의 이름을 王儉이라 한 것은 평양의 旧名인 王險의 險字를 人為로 고친 것”이라는 지적을 통해 단군신화의 인위성을 지적해냄으로써 단군신화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육당 최남선 전집 5 권, 영락, 2003, p.356] 그의 그러한 입장은 1904년 도쿄제대에 동양사학과를 신설한 그의 제자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에게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입장은 조선 초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의 편찬자 정도전을 비롯하여, 『응제시주』(應製詩註)의 저자 권람(權擘, 1416~1465) 같은 주자학자들의 입장, 17세기 초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 1614~1615년 집필, 1640년 아들에 의해 목판 출간)의 저자 한백겸(韓百謙, 1552~1615)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에서의 ‘고조선’연구는 일제의 식민지사관과 한국의 민족주의사관이라는 두 가지 사관에 입각해 행해졌다.

첫 번째에 입각한 연구는 이병도에서 이기백으로 이어지는 경성제대-서울대 출신의 학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그들의 연구가 지닌 특징은 우선 첫 번째로 일제가 주장해온 것처럼 단군을 신화적 존재로 파악하여, 단군조선을 신화적 차원에서 파악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제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위만에 의해 멸망한 고조선의 수도, 위만조선의 수도, 한사군(漢四郡)의 하나인 낙랑군의 위치가 대동강 유역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두 번째로 일제시대 최남선 등의 민족사학자들의 입장을 이어받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단군을 역사적 인물로 보고 단군조선을 한민족의 고대사를 구성하는 한 왕조로 파악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고조선의 정치적 중심지가 어디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네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우선 한 그룹은 첫 번째 조선시대 초의 『동국통감』·『동국여지승람』등을 편찬한 주자학자들, 두 번째로 한백겸, 안정복,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 세 번째로 식민지시대의 식민지사관을 받아들인 학자들 등의 입장을 이어받아, 대동강유역 중심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그룹은 조선조 세종대의 주자학자 권람(權擘, 1416~1465), 실학자 홍여하(洪汝河, 1621~1678), 이익(李瀾, 1681~1763), 일제시대의 최남선, 신채호, 정인보 등과 1993년 이전의 북한학자들 등의 입장들을 이어받아 요동 중심설을 주장했던 자들이다. 1993년 평양인군의 강동군에서의 단군릉 발굴 이전의 리지린 같은 북한학자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세 번째 그룹은 대동강 유역을 근거지로 요하지역으로 활동무대를 확장시켜나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찍이 18세기 말·19세

2) 최남선, 1926, 2, 11~12, 『동아일보』.

기 초 실학자 정약용(丁若鏞, 1762~1836)·한치윤(韓致淵, 1765~1814) 등과 같은 실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정약용은 고조선의 중심지는 한반도였지만 영토를 확장시켜 요서지역을 점령하고 연과 국경을 접해 있었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해동역사』(海東繹史)를 저술한 한치윤은 고조선의 수도는 평양이었는데 그 강역은 요서지역을 넘어서 있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³⁾ 해방 후 그러한 입장을 취한 대표적 학자들은 『조선민족사개론』(1948)의 저자 손진태(孫晉泰, 1900년~미상: 납북), 윤내현, 신용하 등이다. 나머지 그룹은 고조선이 요하유역의 요녕지역에서 성립되어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입장이다. 김정학, 천관우, 이형구, 서영수, 이종욱, 노태돈, 송호정 등이 바로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기자조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룹과 인정하지 않는 그룹으로 양분된다. 천관우, 이형구 등은 기자조선의 실재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김정학, 송호정 등은 그 실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네 그룹에 대해 필자의 경우는 요하의 서쪽에 위치한 대릉하(大凌河) 유역의 요서지역에서 출발해 요서지역의 남단 난하(灤河) 유역과 요하 유역을 거쳐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했다는 입장이다.

2.1.2. 리저널리즘적 시각에서의 ‘고조선’연구

1990년대로 들어와 중국의 요서지역에서 현재 홍산문화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유물들과 유적들이 본격적으로 발굴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학자들에게는 하(夏)문화로 파악되는 황하 유역의 하남성(河南省) 이리두(二里頭) 유적을 근거로 중화 4000년 문명이란 말을 썼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의 변방 지역으로만 생각되었던 요하지역에서 그보다 1000년이 빠른 시점에 성립된 홍산문화가 그 실체를 드러냈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중국인들로서는 그동안 그들이 비화하족(非華夏族)으로만 생각해온 동이족 같은 민족들이 일으킨 문화로부터 자신들의 중화민족문화의 기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중국 정부는 2000년대로 들어와 4년에 걸친 동북공정프로젝트(2002~2007)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시켜 요하문명과

3) 조법중(2010) 『단군과 고조선』, 김정배 편저 [증보]『한국고대사입문』, 신서원, p.221.

황하문명과 관련성을 확립시켜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이 그러한 움직임 보이자 한국의 ‘고조선’ 연구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고조선’에 대해 접근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동안 그들은 한국민족의 활동범위와 관련시켜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고조선’을 연구해왔었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프로젝트의 추진을 기점으로 그들은 동아시아문명의 기원을 이루는 요하문명권의 시각에서 그것을 연구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 학자들이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2007)의 우실하, 『고조선, 신화에서 역사로』(2009)의 이종호, 이형석 등과 같은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기본적 입장은 요하문명을 일으킨 주역이 다름 아닌 바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실하는 “요하 일대의 주도세력은 후대의 예·맥 계열이라고 보아 왔고, 이 예·맥 계열의 민족들이 후대의 부여, 고구려로 이어 진다”고 지적하고 있다.⁴⁾ 이종호는 요서지역에서 출현한 “하가점하층 청동기문화는 단군이 설립한 고조선의 2333년과 유사한 시기에 성립된 것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⁵⁾, “고고학계의 한창균과 윤내현 이후 복기대는 홍산문화의 주인공은 조선민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맥족 문화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다.⁶⁾ 이 경우 한국학자들의 내셔널리즘적 시각에 입각한 초기 ‘고조선’에 대한 접근은 일체의 내셔널리즘적 시각에 근거해 대동강 유역(평양)을 중심으로 파악한 ‘고조선’이다.

이에 대해 리저널리즘적 시각에서 접근한 초기 ‘고조선’은 요서지역 중심의 ‘고조선’이다. 그러한 리저널리즘적 시각의 논거는 요서지역에서 기원전 2천 년대 중후반에 형성된 하가점 초기 청동기문화이다. 한마디로 ‘고조선’은 그 청동기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되어 나왔다는 입장이다. 내셔널리즘적 입장을 취하는 김정배의 경우는 ‘고조선’을 단군조선·예맥조선·위만조선으로 삼분해 청동기문화와의 접촉을 예맥조선부터 보고 있다. 게다가 기원전 12~9 세기에 요하 유역과 한반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파형 청동검 문화를 배경으로 ‘예맥조선’이라고 하는 ‘군장사회’단계의 ‘고조선’이 형성되어 나왔다는 입장을 제시

4) 우실하(2007)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 소나무, pp.266~267.

5) 이종호·이형석(2009) 『고조선, 신화에서 역사로』, 우리책, p.57.

6) 상동서, p.80.

하고 있다. 그러나 리저널리즘적 시각을 취하는 학자들은 ‘고조선’이 이미 단군조선 단계부터 청동기문화와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단군조선을 부족국가 내지 고대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파악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2.1.3. 기존의 내셔널리즘적·리저널리즘적 시각과 필자의 글로벌리즘적 시각

필자는 기존의 『고대의 메소포타미아문명과 고조선』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⁷⁾ 글로벌리즘적 시각, 즉 전 지구적 차원의 시각에서 요하문명의 성립 경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요하문명권에 존재했던 ‘고조선’의 실체를 규명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우리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기문화’라는 말은 쓰고 있으나 ‘석기문명’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청동기문화’라든가 ‘철기문화’와 같은 말들도 쓰고 있고, ‘청동기문명’이라든가 ‘철기문명’과 같은 말들도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청동기나 철기가 석기보다 그 가공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요하문명이라 말할 때 요하구역에서 형성된 홍산 신석기문화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것은 홍산 신석기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되어 나온 청동기와 철기문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요하문명의 형성경위를 고찰한다는 것은 요하구역에서의 청동기 및 철기문명의 형성경위를 규명해낸다는 뜻이다.

요하지역에서 형성된 전기 청동기문화는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지역에서 출현한 청동기문화의 영향 하에서 중앙아시아의 알타이지역에서 출현한 청동기문화가 알타이산맥, 몽골고원, 내몽골 북부, 요하지역의 서부를 통해 들어간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요하문명의 출현에 대한 고찰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행해야한다는 입장이 취해지는 것이다. 또 만일 요하지역에서 출현한 청동기문화가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지역 - 중앙아시아의 알타이지역 - 동아시아의 요하지역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청동기문화의 전파자가 다름 아닌 바로 단군족의 선조일 수 있다는 입장도 취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문명- 중앙아시아의 알타이문명- 동아시아의 요하문명을 하나의 시야에 넣을 수 있는 글로벌적 시각

7) 김채수(2012), 『고대 메소포타미아문명과 고조선』, 『동북아문화연구(제31집)』(2012), 동북아문화학회, pp.149~150.

에서 요하문명의 형성경위가 고찰되어야 하고, 그러한 시각을 통해 ‘고조선’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취해지는 것이다.

2.2 요하문명의 출현경위

2.2.1. 동서교통로와 북방 초원로

지금까지 우리는 구석기시대를 인류가 이동생활을 해왔던 시대라 말하고, 신석기시대를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한 시대로 파악해 왔다. 이 경우 우리가 말하는 구석기시대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후기 구석기시대(3만 5천 년~1만 2천 년 전)를 가리킨다. 그 기간 인류의 이동흔적은 비너스상(제작연대 2만 5천 년~2만 년 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것들이 발견되는 지역은 서쪽은 서유럽의 피레네산맥 북쪽 기슭에 있는 프랑스 브라쌍푸이에서부터 시작해 동쪽은 동시베리아의 바이칼호 부근의 브레티까지 이르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그것이 발견된다는 것은 인류가 유라시아대륙의 서단에서 북방 초원로를 통해 북방 유라시아 지역의 동단으로 이동했다는 증거이다⁸⁾. 이것과 관련해 북방 초원로의 동단에 위치한 요하유역에서 형성된 홍산 신석기문화(6000~2500, BC)의 유적지들 중의 하나인 중국 최초의 원시유적지 동산취(東山嘴) 등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의 것으로 판명된 임신한 소조상(小彫像)이 발견되었다.⁹⁾

이 지구상에서의 신석기시대는 기원전 12000년 이후에 도래한 그 시대의 유물들을 통해서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민족들의 집단적 이동이나 혹은 문화적 전파 등의 흔적들이 파악된다. 북방 시베리아의 서쪽에서 동쪽의 요서지역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예컨대 요서지역의 경우 흥륭와(興隆窪)유적 등이 출토된 지역)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줄문)토기(기원전 3000~700)¹⁰⁾이라든가, 아프리카 - 남 러시아 - 투르키스탄 - 몽골고원 - 요서지역 등에서 발견되는 세석기 등이 북방 초원로를 통한 그러한 이동 흔적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청동기시대(기원전 4000~3500년경부터 기원전 1200년까지)에 이르러서도 북

8) 정수일(2001)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 p.50.

9) 이종호·이형석(2009) 『고조선, 신화에서 역사로』, 우리책, p.60.

10) 우실하(2007)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 소나무, p.125.

방 초원로를 통해 동서간의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된다.¹¹⁾ 북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지역에 있는 알우바이드(al-Ubaid)문화 및 우르크(Uruk)문화-알타이지역문화 - 요서지역문화 등의 청동기문화의 교류가 그 일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2.2 알타이문명의 동진과 요서의 하가점하층 청동기문화

알타이산맥을 중심으로 한 알타이지역은 지중해와 인접한 소아시아지역의 토투스(Taurus)산맥으로부터 시작해 흑해 및 카스피해와 인접한 카프카스(Kavkas)산맥, 이란의 엘부르(Elburz)산맥 및 자그루스(Zagrus)산맥,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힌두 쿠스(Hindu Kus)산맥, 중국 서부지역의 천산(Tien Shan)산맥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다. 또 그 지역은 동북으로는 사얀(Sayan)산맥, 바이칼(Baykal)산맥 등으로 연결되어 있고 동으로는 한가인(Hangayn)산맥, 타 힌안링(Ta Hingan Ling)산맥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다. 인류는 구석기시대 이래 그러한 산맥들의 양 산자락들을 타고 끊임없이 서남에서 동북으로 이동해 나왔다. 또 그 알타이지역은 시베리아지역에서의 동서문화의 교차지역이기도 하다.

기원전 4000~3500년경에 서아시아에서 출현한 초기 청동기(주석이 섞이지 않은 순동)문화가 알타이지역에 전파되어 그 지역에서 아파나시에보(Afanasievo)의 초기 청동기문화가 형성된 것은 기원전 3000~2000년경의 일이다. 또 그것이 요하지역에 전파된 것은 기원전 2500~2100년경의 일로 파악된다. 그 결과 요서지역을 중심으로 전기 청동기문화인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가 요하지역에서 형성되어 나왔던 것이다. 예컨대 적봉시(赤峰市) 지주산(蜘蛛山) 유적에서 출토된 기원전 2470~2150년경의 청동기유물이 그 구체적 일례라 할 수 있다.¹²⁾

2.2.3. 요하문명의 남진과 하왕조의 성립

요하문명은 요하지역에 전파된 서쪽의 알타이 초기 청동기문화가 요서의 신

11) 김채수(2010), 『고대 동아시아삼국의 서역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동북아문화연구(제24집)』(201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433~444.

12) 귀디순·장성덕(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상』, 동북문화재단, p.546.

석기문화인 홍산문화권으로 전파되어 그것을 배경으로 성립되어 나온 문명이다. 그런데 홍산 신석기문화는 기원전 6000년~5000년경에 형성되어 나와 기원전 3000년경에 절정에 달했던 것으로 고찰된다. 홍산 후기 신석기시대(기원전 4000~2000)는 제단(祭壇), 여신묘(女神廟), 적석총(積石塚), 옥룡(玉龍) 등이 출현했던 시기로 소병기(蘇秉琦)에 의하면 고대 초기국가(소병기의 용어: 고국(古國)-방국(方國)-제국(帝國)에서의 『古國』단계)가 성립된 시기이다.¹³⁾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요하지역에서의 청동기문명은 서아시아의 초기 청동기문화가 알타이지역을 통해 요하지역에 전파된 것이 기초가 되어 대략 기원전 2500년경 전부터 형성되어 나왔던 것으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중원지역에서의 황하문명은 어떻게 형성되어 나온 것인가? 중원지역에서 황하문명이 형성되기 시작된 것은 하왕조(夏王朝, 2070~1550경, BC)가 성립되기 이전으로 고찰된다. 현재 학계에서 파악한 황하문명의 실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황하유역에 위치해 있는 하남성(河南省) 연사현(偃師縣) 이리두(二里頭) 유적지로 보고 있다. 학계에서는 바로 이 유적지를 하왕조(2070~1550경, BC)의 수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 유적지를 비롯한 인접 지역의 유적들은 기원전 2000년경을 전후해서 형성된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러시아의 고고학자 I.V.몰로딘(Molodin)은 이 문화의 유적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아파나시예보 문화가 몽골의 서부지역과 중국의 서북지역에서도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⁴⁾ 그런데 여기에서 I.V.몰로딘이 언급하고 있는 아파나시예보 문화란 서아시아 북부 초원지대에서 형성되어 나와 알타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카자흐스탄지역에서 직접 중국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천산산맥지역으로 들어와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내몽골자치구 지역으로 전파된 초기 청동기문화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아파나시예보의 초기 청동기문화는 알타이지역을 경유해 기원전 2500년경 이전에 요하지역에 들어간 초

13) 소병기는 고대국가의 성립과 전개를 『고국(古國)-방국(方國)-제국(帝國)』을 파악하고, 고국은 홍산문화의 제단·여신묘·적석총 등이 형성된 기원전4000~3000년경, 방국은 하가점하층 청동문화가 형성된 기원전 2000년경, 제국은 진시황이 갈석궁(碣石宮) 등이 축조된 기원전 200년경으로 규정했다.[귀다순·장성터(2008) 『동북문화와 유원문명 상』, 동북문화재단, p.367].

14) I.V.몰로딘(Molodin)(1995) 『청동기시대』, 『알타이문명전』, 국립중앙박물관, p.40.

기 청동기문화와는 다른 계열의 청동기문화이다. 그것은 알타이지역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서아시아 북부의 초원지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아파나시예보 초기 청동기문화는 어떠한 식으로 황하문명의 성립에 영향을 끼쳤던 것인가? 카자흐스탄 초원지역으로부터 중국 서북지역의 영하자치구와 내몽골자치구지역의 남부에 전파된 아파나시예보 초기 청동기문화는 현재 내몽골 지역으로부터 황하의 산서성(山西省)과 섬서성(陝西省)의 경계를 이루는 황하의 서하(西河)를 타고 남하하여 황하 중류지역을 통해 중원으로 전파해 나갔다. 그것이 그러한 통로를 통해 중원에 전파된 것은 시기적으로 요하지역보다 300~400년 정도 늦은 시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산서성(山西省)의 서부를 흐르는 분수(汾水)의 하류지역, 섬서성(陝西省)의 남부를 흐르는 위수(渭水)의 하류지역, 하남성(河南省)의 서부지역 등으로 이루어진 중원지역에서 초기 청동기 문화를 형성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요하유역에서 전기 청동기문화가 형성되어 그것이 황하 하류로 전파해나갔고, 또 그것이 황하를 타고 중원지역의 하남성 쪽으로 북진해 올라갔다.¹⁵⁾ 그래서 그것은 그곳의 초기청동기문화와 충돌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의 초기 청동기문화가 청동기문화로 전환해 나오게 되어 그것을 배경으로 하왕조(2070~1550, BC)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요하유역에서 전기 청동기문화가 형성되어 그것이 요하지역 남부의 난하 하류지역으로 전파해나갔다.¹⁶⁾ 그래서 그것은 남쪽의 황하유역으로 전파되어 그곳에서 중원지역의 하남성 쪽으로 서진해 나갔다.¹⁷⁾ 그 결과 황하유역으로 남진한 요하의 전기 청동기 문화는 그곳의 초기 청동기문화와 충돌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요하문명과 황하문명과의 충돌을 배경으로 하왕조(2070~1550, BC)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요하문명의 황하유역으로 남하한 현상은 하왕조의 성립직전 오제시대(五帝時代: 2300~2070년경, BC)의 수도가 지금의 하북성 북부와 요녕성 서부이었던 기주(冀州)에 있었는데 하왕조의 설립이 황하 유역의 중원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¹⁸⁾ 그 후에도 맥족을 위시한 동이족이 일으킨

15) 복기대(2002)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백산자료원, p.67.

16) 遼寧省博物館編(2009) 『遼河文明』, 遼寧人民出版社, pp.36~37.

17) 복기대(2002)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백산자료원, p.67.

18) 정법진 외 역(2005) 『사마천시기 1:史記本紀』, 까치, p.19.

요하의 전기 청동기문화는 요하지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남하해 황하의 하류지역으로 전파해 나가, 그곳에서 다시 황하 중류로 전파해 나감에 따라 기원전 18세기 전반에 이르러서는 결국 하의 정치적 중심지보다 동쪽에 위치한 하남성을 중심으로 상왕조(상왕조, 1766~1122, BC)를 성립시켰다.¹⁹⁾

2.2.4. 철기문화의 중원 도래와 중원문화의 요하지역으로의 복상

서아시아에서의 철기문명이 성립된 것은 소아시아지역의 아리안계 히타이트왕국에서 기원전 1400년경 철 제련기술이 발명됨으로써였다. 그 왕국의 멸망(1190, BC)을 기해 철기문화가 동서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중국에 철기문화가 전파된 것은 카자흐스탄 남부 초원지대를 통해서였고, 기원전 1200년경 중국의 서단 신강 위구르지역에 도달하였다.²⁰⁾ 그 결과 상왕조가 무너지고 주왕조가 기원전 1122년에 성립되어 나왔다. 주(周 : 서주는 1122~770, BC)를 건립한 화하족(華夏族)의 선조는 오아시스로인 중앙의 실크로드를 타고 천산산맥을 통해 황하 상류를 타고 중원지역에 이르러 서안(西安) 근방에 정착해 화하족으로 성장한 것으로 고찰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화하족은 섬서성의 화음현(華陰縣)의 남쪽에 위치한 산, 즉 오악(五嶽) 중의 하나인 화산(華山)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하씨(夏氏) 일족을 중핵으로 성장해 나온 민족 집단으로 고찰된다. 그것은 요하지역에서 출현한 동이족 계열의 상을 일으킨 민족과는 다른 민족 집단이었다. 황하 상류로부터 출현한 주족(周族)이 황하 하류에서 출현한 상(商)을 멸망시키자, 그것을 기해 그 이후 황하의 중원문화가 요하지역으로 복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2.3 기자조선과 ‘고조선’의 실체

2.3.1. ‘고조선’의 명칭

‘고조선’이란 명칭은 한국 측의 문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말이다. 이것이 최초로 나타난 문헌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삼국유사』(1280년대 말엽)이다. 이 문헌 속의 “古朝鮮 壇君王儉”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의 ‘고조선’(古朝鮮)이

19) 이춘식(1996) 『중국고대사의 전개』, 예문출판사, pp.27~28.

20) 韓建業(2007) 『新疆的青銅器時代和早期鉄器時代文化』, 文物出版社, pp.7~8.

란 ‘위만조선’(衛滿朝鮮) 보다 더 먼저 존재했던 『조선』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연에게 ‘고조선’, 즉 ‘위만조선보다 먼저 존재했던 조선’은 지금의 사학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이었다. 동시대에 중국인들에게서의 위만조선 이전의 ‘고조선’은 ‘기자조선’이었다. 그러나 일연은 중국사학자들의 그러한 입장에 반대해 ‘고조선’을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으로 양분시켜 파악하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일연의 그러한 입장에 대해 김정배는 중국인 학자들이 사용하는 ‘기자조선’ 대신에 ‘예맥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 경우 실체는 같지만 표현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에서 쓰는 ‘예맥조선’은 표면의 측면에서는 김정배와 동일하지만 그 실체의 측면에서는 중국사학자의 ‘기자조선’이나 김정배의 ‘예맥조선’과는 다르다.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예맥조선’은 요한의 남부에서의 ‘기자조선’의 출현에 대립해 ‘단군조선’을 이어받아 요하중부에서 출현한 국가이다.

그런데 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古朝鮮)에서의 ‘조선’(朝鮮)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아침의 소산(小山)’을 뜻했던 말로서 ‘단군조선’을 일으킨 예맥족이 ‘아사달’이라 부른 지역의 중국명칭이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필자는 ‘아침산’을 의미하는 ‘아사달’이란 말은 아시리아인이 자신들의 원향(原鄉)이라 생각했고 또 자신들의 선조와 그들의 최고신 ‘아슈르’(Ashur)가 출현했다고 하는 ‘아슈르의 산’(Mountain of Ashur)으로 불려온 지역명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²¹⁾ 그러한 구체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의 하나는 아시리아 민족의 선조가 아슈르(Assur)지역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기원전 2500년경에 아슈르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세우고 자신들의 최고신으로 아슈르(Ashur)를 받들게 된 시점이 『삼국유사』에서 단군이 ‘단군조선’을 세웠다는 시점보다 약 2세기 이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면 “아슈르의 산”(Mountain of Ashur)란 말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언제쯤 요하지역으로 전파되어 ‘아사달’이란 말로 쓰이게 되었던 것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고찰된다. 즉 아시리아 민족의 선조 중에서 일부가 메소포타미아 북쪽의 아슈르로부터 그 북쪽에 위치해 있는 흑해와 카스피해의 북안에 펼쳐진

21) 이 ‘아사달’의 문제는 줄고 『일본의 『고사기』신화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신화』(『일본문화연구40집』, 2011.10)의 제2장 제3절 『요하문명과 단군신화』부분에서도 다루어져 있음.

초원지대로 나와 그곳에서 아파나시예보 초기 청동기문화를 가지고 그 초원지대의 동북쪽 끝에 위치한 알타이 지역으로 동진해 나왔다. 그들은 다시 알타이 지역에서 알타이산맥의 남쪽자락을 타고 고비사막 북측의 몽골고원을 통해 동남쪽의 요하(遼河)지역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고찰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증거 중의 하나로 알타이지역 서쪽으로 펼쳐진 초원지대에 현재 카자흐스탄의 수도명이 ‘아사달’과 발음이 유사한 ‘아스타나’(Astana)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요하지역에서 형성된 전기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청동기유물로 비파형청동검을 들고 있다. 그런데 요하지역과 한반도에 퍼져 있는 비파형청동검이 한민족의 원류로 고찰되는 예맥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 이 경우 김정배는 그 비파형청동기의 원형이 아스타나의 인접지역인 카라간다 등과 같은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²²⁾. 이러한 점을 감안해봤을 때, ‘아사달’이란 말은 서아시아에서 청동기문화의 세례를 받은 인간집단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으로부터 카스피해 북안의 초원지역을 통해 알타이지역을 거쳐 요하지역으로 들어오던 과정에서 요하지역에 전파되어 나왔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2.3.2 민족적 집단으로서의 단군조선

김정배는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에서 “우리나라민족의 기원과 형성을 논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주민집단은 단연 신석기시대의 ‘고아시아족’과 청동기시대의 ‘예맥족’이라 할 수 있다”라고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²³⁾ 그런데 그는 예맥족의 활동 지역이었던 요하지역에 청동기시대가 도래한 시기를 기원전 10세기 전후로 보았다.²⁴⁾ 그러나 2000년대로 들어와, 적봉시(赤峰市) 지주산(蜘蛛山) H42 유적지 등의 유물들에 근거해 예맥족 혹은 그들의 선조들이 활동하던 요하지역에 기원전 2500년경 이전에 이미 청동기문화가 형성되어 나왔다는 주장

22) 김정배(2010)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513.

23) 김정배 편저(2010) 『증보한국고대사 입문』, 신서원, p.35.

24) 김정배(2010)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324.

이 제기되었다.²⁵⁾ 만일 우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기원전 2500년경에 요하지역에서 활동했던 민족을 예맥족의 선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우리가 여기에서 김정배의 의견을 가지고 논리를 한층 더 전개시켜본다면 예맥조선의 선조는 ‘고아시아족’이라는 이야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고아시아족’이란 다른 지역으로부터 청동기문화가 아시아지역에 전파되어 들어오기 이전에 아시아지역에서 살았던 신석기인으로 파악되고 그 고아시아족의 원향은 바이칼호 지역을 포함한 동 시베리아지역으로 고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고아시아인은 시베리아와 동북 아시아지역에서 생존했던 신석기인이고 예맥인은 청동기시대가 도래하자 그 신석기인 자리에서 출현한 민족으로 파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신석기시대의 고아시아인은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했고 청동기시대 이후의 예맥인은 무문토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고찰된다. 동북아시아의 고아시아인은 일본열도로도 이동해 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새끼줄문양이 박힌 조문(繩文) 토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 후 기원전 3세기에 와서부터는 일본열도에 청동기와 철기와 함께 문양이 없는 야요이(弥生) 토기가 출현했다. 요하지역의 예맥인들이 한반도를 통해 일본열도에 가져간 것으로 고찰된다.²⁶⁾

적잖은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한국 민족의 기원을 논할 때 ‘예맥’(穢貊 : 濊貉), ‘맥족’(貊族), 예족(穢族) 등과 연결시킨다. 서주시대(1122~770, BC)의 사서로 알려져 있지만 전국시대(戰國時代, 403~221)에 편찬된 것으로도 이야기 되는 『일주서』(逸周書)의 「왕회편」(王會篇)에 ‘예인’(穢人)이란 말이 출현한다. 또 ‘예맥’(穢貊)과 관련해서는 『관자』의 「소광편」(小匡篇)이 보여주고 있듯이 ‘예맥’(穢貊)이란 말은 춘추시대(770~481, BC)부터 출현한다. 그러나 ‘예’(濊)와 ‘맥’(貊)은 이미 서주시대의 사서들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일주서』(逸周書)의 「王會篇」에 “穢人, 前兒”란 표현이 나오고, 『후한서』에는 기자가 조선에 갔다는 기록 속에 기자가 예(穢)인을 상대로 예의와 누에고치를 가르쳤다는 말이

25) 귀다순·장성더(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상』, 동북문화재단, p.546. / 복기대(2002)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백산자료원, p.68.

26) 佐原真(1980) 「農業の開始と階級社会の形成」, 『岩波講座 日本歴史 1』, 岩波書店, p.119.

있다. 『시경』의 「한혁」(韓奕)에는 주의 여왕(厲王, 878~828, BC)시대의 일을 읊은 가사 속에 ‘맥’(貊)족이 나온다. 『한서』(漢書)의 「왕망전」(王莽傳)에서는 고구려인을 ‘맥인’(貉人)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한자 사용은 기원전 14~11세기 갑골문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요하지역에 최초로 청동기가 사용된 기원전 2500~2400년경에 맥족이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기록될 수 없었다. 또 주 초기에 요하 서쪽의 맥족과 그 동쪽의 예족이 융합되어 예맥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민족이 출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원지역의 식자들에게 알려져 갑골문이나 금문(金文)등으로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서주 이전의 일은 춘추시대 이후의 기록을 가지고 추정해본다든가 혹은 고고학이나 문화인류학적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예’(穢 : 濊)는 요하의 북쪽에서 주로 농업으로 생존하였던 민족이다. ‘맥’(貊 : 貉)은 요하지역에서 목축업에 종사했던 민족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가 알타이산맥지역 출신이라면, 맥은 알타이산맥 이남 몽골고원 출신으로 고찰된다.

요서의 전기 청동기문화로 알려진 하가점하층문화(2400~1300, BC)는 산용(山戎)이 일으켰고, 그것을 배경으로 출현한 하가점상층 청동기문화는 동호(東胡)가 일으킨 문화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다.²⁷⁾ 일부의 중국 고고학자들은 현재 한국의 고고학자들이 한국 고유의 대표적 청동 유물로 파악하고 있는 비파형청동검을 하가점상층문화의 대표적 유물로 파악하면서 그 비파형청동검이 요서에서 출현해 요동으로 전파되어 나갔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²⁸⁾ 또 부여의 기원지로 밝혀진 탁리(濠離)지역의 선인들이 하가점상층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백금보문화’(白金寶文化)를 일으켰다는 고고학적 연구결과가 있다.²⁹⁾

이 문화는 서주시대(1122~770, BC)에는 이미 현재의 하르빈지역 근방의 눈강(嫩江)일대에 널리 퍼져 있었다.³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민족의 원류로 받아들여지고 예맥조선의 선조로 고찰되는 맥족이 전기 청동기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하가점하층문화와 또 그것을 기초로 형성되어 나온 하가점상

27) 손진기 저·임동석 역(1992) 『동북민족원류』, 동문선, p.222.

28) 靳楓毅(1982) 『論中国东北地区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 『考古學報』.

29) 손진기 저·임동석 역(1992) 『동북민족원류』, 동문선, p.235.

30) 상동서, p.235.

층문화의 주역이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그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 의거한 것이다.

동호는 춘추시대에는 산융이었는데, 전국시대(403~221, BC)에 이르러 그것이 동호로 불리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 근거는 ‘동호’라는 명칭이 전국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¹⁾ 이러한 입장은 ‘동호’라는 명칭이 최초로 나오는 『일주서』의 편집연대를 전국시대로 보는 학자들의 주장이다.³²⁾ 그러나 『일주서』의 편집연대를 서주시대(1122~770, BC)로 파악하는 학자들의 경우는 『일주서』, 『사기·흉노열전』 등에 산융과 동호가 병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서로 다른 민족들로 보고 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산융은 지금의 대릉하(大凌河)유역의 상·중류지역, 즉 우하량(牛河梁), 동산취(東山嘴), 조양(朝陽) 등의 지역에서 터를 잡고 있던 민족이고, 동호는 지금의 시라르렌강(西拉木倫河)유역에 있던 민족이다.³³⁾

손진기는 산융이 동호의 선조일 수 없지만, 예맥과 산융은 같은 민족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의 여러 자료들에 근거해, 예 혹은 예맥의 후예가 고구려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동호·산융·예맥을 같은 민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어떤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계열의 민족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으며, 예맥 중의 맥은 동호와 동원(同源)이라는 입장도 취하고 있다.³⁴⁾ 중국인들은 춘추시대(722~481, BC)에서 전국시대(403~221, BC)에 걸쳐 이루어진 중국의 고문헌에 나타나 있는 명칭들을 근거로 해서 요하지역에 산융, 동호, 예맥(예족, 맥족) 등이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어느 민족이 제일 먼저 이 지역에 거주했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때, 서주 이전까지만 해도 예족과 맥족은 요서지역의 홍산문화권의 동과 서에서 별도로 생활하였다고 추정된다. 중원지역에서 기원전 1766년경 상이 건립되기 이전까지 대릉하 유역에서 살았던 맥족(손진기는 이 민족을 산융족이라 말하고 있음)의 경우 상의 건립시점에서 요서의 남부 지역으로 남하해 난하의 하류 지역에서 터를 잡고 그곳에서 고죽국을 세웠다.

31) 상동서, pp.86~87.

32) 近藤春雄(1997) 『中国学芸大事典』, 大修館書店, p.131.

33) 손진기 저·임동석 역(1992) 『동북민족원류』, 동문선, p.87.

34) 상동서, p.227·p.236.

그러자 요하의 동북쪽에 있던 예족이 요서지역으로 남하해 맥족이 살던 대릉하 중·상류지역을 점령해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중원의 철기문화가 북상해 오에 따라, 맥족은 다시 예족이 차지해 살고 있던 요하의 중부지역으로 이동해 올라갔고, 또 그의 일부는 재차 요하지역의 동북쪽으로 되돌아갔다. 그 과정에서 그 일부가 맥족과 결합해 김정배가 말하는 예맥조선을 대릉하와 요하 사이의 부신(阜新)지역에서 설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맥조선이 부신지역에서 설립되었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삼국유사』의 「고조선 단군왕검」편에 「주 무왕(武王)이 즉위한 기묘년(기원전 1122)에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이 이에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겨갔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것은 기자가 단군족의 정치적 무대였던 요하의 남부로 망명해 들어와 중국의 중원정부의 국력을 배경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도권을 행사해 가려하자 단군 족은 그 지역을 떠나 요하지역의 중부에 위치한 그들의 원향인 조양지역 쪽의 장당경(藏唐京)으로 천도해 올라갔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필자가 부신지역을 장당경으로 파악한 것은 한무제가 요하지역의 남부에 위치해 있던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삼군을 설치한 다음 그 이듬해 요하지역의 또 다른 세력을 쳐부수고 그 지역에 현도군을 설치했는데 바로 그 지역에 부신지역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삼국유사』에 앞의 인용문에 이어「단군은 후에 아사달로 돌아가 은거하다 산신이 되었다」는 문장이 있다. 이것은 ‘예맥조선’이 장당경에서 한무제에 멸망당하자 나라를 빼앗긴 후, 단군조선이 최초로 건립되었던 조양지역으로 피신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거는 1973년 중국학자들에 의해 대릉하 일대에서 기후명 방정(箕侯銘 方鼎)을 비롯한 상말 주초의 유물들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학자들은 그것들을 기자조선이 실제 존재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필자는 그것과 더불어 그것들이 난하 하류에 정치적 무대를 지니고 있던 ‘단군조선’이 대릉하의 중류로 천도하였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측의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객좌(略左) 일대 청동기 매장지에서는 계통이 다른 여러 개의 족씨(族氏)집단 명문이 섞여서 함께 출토되는 특징이 보인다. 이것은 특정 족씨 집단의 존재나 활동과 관련되기 보다는 이들 여러 집단을 통합할 수 있는 상위 세

력에 의해 이 지역 청동기 매장지가 조성되었음을 말해준다.”³⁵⁾ 그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필자는 그 ‘상위세력’이 바로 그 지역으로 정치적 무대를 옮긴 ‘단군조선’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군조선’이 난하 하류에서 대릉하 중류로 북상해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부여의 성립시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해볼 수 있다. 맥족은 지배층을 차지했었고, 예족은 피지배층을 차지했던 것으로 고찰된다.

그런데 제환공(齊桓公)이 기원전 664년에 산융을 쳐부수었는데, 이때 제환공에 의해 멸망된 나라는 고죽국이였다. 고죽국이 멸망하자 그 유민들 일부는 요하의 동북지역으로 이동하여 송화강 유역에서 부여를 건설한다. 이 때 서남으로부터 올라온 맥족은 지배층이 되고 그 지역의 예족은 피지배층이 되었다. 그런데 그 후 고죽국이 멸망한 자리에는 동호가 남하하여 산융의 고지를 점령해 살았다고 한다. 그 후 연의 진개(秦開)가 284년에 그들을 1천 리 밖으로 퇴각시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³⁶⁾ 그 다음 기원전 1세기 후반에 와서 부여인 주몽이 요하지역으로 남하해 고구려를 세웠다.

2.3.3.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단군조선

단군신화에서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왕검은 웅녀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사이에서 태어난 자로 되어 있다. 이 경우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은 서아시아의 지역으로부터 청동기문화를 가지고 알타이지역을 거쳐 요하지역으로 동진해 온 집단의 한 족장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웅녀는 요서의 홍산문화권 지역 출신의 인간집단으로 파악될 수 있다. 단군신화와 같은 계열로 파악되는 일본의 ‘기기신화’(記紀神話)도 단군신화와 유사한 표현을 취하고 있다.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御神)의 장손 니니기노 미코토(邇邇藝命)는 5명의 부족장 신들을 거느리고 조모 태양신으로부터 삼종(三種)의 신기(神器)인 곡옥(勾璫:曲玉)·거울(鏡)·검(劍)을 하사받아 히무카(日向: 규슈 지역)의 다카치호 노미네(高千嶺)에 내려온다.³⁷⁾ 이것은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삼천의 무리를 이

35) 박대재(2010) 『箕子 관련 商周青銅器 銘文과 箕子東來說』, 『先史와 古代 32』, 한국고대학회, p.143.

36) 손진기 저·임동석 역(1992) 『동북민족원류』, 동문선, p.87.

끌고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천왕환인으로부터 하사받아 태백산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에 완전 대응된다. 이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비를 동반한 바람과 구름이 불어오는 방향인 서쪽 지역으로부터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타 인간집단이 이주해온 현상을 상징적으로 기술해 낸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서쪽으로부터의 동진세력들의 후손들이 이주지역의 토착민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해가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문화인류학자 오카 마사오(岡正雄, 1898~1982)는 일본의 『고사기』신화가 단군신화와 유사한 것은 그것들이 동일계열의 알타이신화들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³⁸⁾

단군신화에서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왕검은 웅녀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사이에서 태어난 자로 되어 있다. 이 경우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은 서아시아의 지역에서 알타이지역을 거쳐 요하지역으로 동진해 온 집단의 한 후예로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웅녀는 요서의 홍산문화권 지역 출신의 인간집단으로 파악될 수 있다. 단군신화와 같은 계열로 파악되는 일본의 ‘기기신화’(記紀神話)도 단군신화와 같은 표현을 취하고 있다.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御神)의 장손 니니기도 미코토(瀛瀛藝命)는 10명의 부족장 신들을 거느리고 조모 태양신으로부터 삼종(三種)의 신기(神器)인 곡옥(曲玉)·거울·검을 하사받아 휴가(日向 : 규슈 지역)의 다카치호노미네(高千嶺)에 내려온다. 이것은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하사받아 태백산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와 완전 대응된다.³⁹⁾ 이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비를 동반한 바람과 구름이 불어오는 방향인 서쪽지역으로부터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타 인간집단이 이주해온 현상을 상징적으로 기술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서쪽으로부터의 동진세력들의 후손들이 이주지역의 토착민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해가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삼국유사』에 기술된 단군신화를 분석해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세상에 내려와 정착한 후 그의 아들 단군왕검에 의해 고조선 국가가 건설되

37) 오노 야스마로(太安万呂) 저·권오엽 외 역(2007) 『고사기 상』(古事記 上), 고즈원, pp.308~309.

38) 岡正雄(1979) 『異人その他』、三陽社, p.43.

39) 김채수(2011) 『일본의 『고사기』신화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신화』, 『일본문화연구(제40집)』(2011), 동아시아일본학회, pp.155~156.

는 과정이 상징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환웅이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와 인간세상을 다스려가는 과정이다. 이때 환웅이 다스리는 지역은 신시(神市)라 불렸고, 환웅은 환웅천왕이라 불렸다. 그 신시 주변 지역에는 곰을 토tem으로 신봉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tem으로 신봉하는 부족이 공존하고 있었다. 또 그들은 환웅천왕이 다스리는 신시의 인간들과 같은 문화를 지닌 인간들이 되기를 원했다. 그것을 알게 된 환웅천왕은 자신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해올 때 자신들의 원향으로부터 가지고 온 문화(쑥과 마늘)를 수용토록 했다. 사실상 쑥과 마늘은 유럽 내지 서아시아를 원산지라 한다. 그러자 곰 토tem 부족은 환웅천왕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호랑이 토tem 부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고고학적 측면에서 고찰되는 단군의 선조는 서아시아의 아시리아지역 출신으로 청동기문화의 동진을 따라 알타이지역을 거쳐 요하로 이주한 인간집단이다. 민족적 측면에서 고찰해볼 때 우리는 그들을 맥족이라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북부 아시리아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환웅천왕족이 요하지역의 선주민 곰 토tem부족과 융합되어가는 과정이다. 서쪽에서 이주해온 환웅천왕족과 그 지역의 선주민 곰 토tem부족과 결합하여 새로 출현된 인간집단으로부터 출현한 단군왕검이 그 요하지역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게 된 과정이다. 세 번째는 단군왕검이 아사달이라는 지역에서 조선(朝鮮)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단군신화는 서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서풍을 타고 북방의 초원로를 통해 알타이지역을 거쳐 요하지역으로 이주해온 인간집단이 그곳에서 선주민과 융합해 가는 과정과 그들 후세들 중의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인간들을 다스려가게 될 국가를 건립하는 과정이 비유적으로 기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천황가가 한반도로부터 금속기문화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간 인간집단을 배경으로 출현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⁴⁰⁾, 단군왕검도 서역으로 청동기문화를 가지고 알타이지역을 거쳐 요하에 들어온 인간집단으로부터 출현한 인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40) 김채수(2012) 『고대 알타이문명과 일본 천황가』, 『일본문화연구(제42집)』(2012), 동아시아일본학회, pp.131~132.

필자는 이러한 단군신화의 실체를 논증해주는 고고학적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요서지역의 대릉하의 중상류지역에 우량하, 동산취, 조양 등과 같은 지역이 있다. 이들의 지역들로부터 100km 이내에 형성된 홍산문화유적군에는 여신상들이 발굴되고, 또 우하량 유적지에는 그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수많은 적석총(積石塚)들의 중앙에 여신묘(女神廟, 신전)가 안치되어 있다. 또 그 여신묘로부터는 곰 형태의 각종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이 지역 일대가 단군신화를 믿었던 부족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단군신화에는 환웅천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세상을 다스리게 된 지역에 신시(神市)로 이름 붙여져 있다. 그런데 여신묘가 있는 우하량 유적지는 해발 671m의 산등성이에 위치해 있다.⁴¹⁾ 귀다순(郭大順)은 “우하량 (유적지)은 종교와 제사의 장소이다. 여신묘 내외의 100여 km² 범위 내에서 어떠한 주거흔적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⁴²⁾ 또 그 유적지에는 동(銅)을 제련한 도가니 파편들이 산포되어 있다.⁴³⁾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는 이 우하량 유적지가 단군왕검 시대에 ‘신시’(神市)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 취해지는 것이다.

소병기는 신석기시대 후기 홍산문화권 지역에 고국(古國)형태의 고대국가가 존재했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 시대에 고대국가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우하량 일대가 그 국가의 수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홍산문화시대를 오제시대의 전기로 파악하고 있다.⁴⁴⁾ 오제시대 전기에 치우(蚩尤)가 요하지역 출신의 정치적 지도였다고 한다면, 단군왕검은 그보다 후에 태어난 자로 오제시대 후기의 인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고찰해 봤을 때, 단군조선은 하왕조가 건국된 기원전 2070년경 이전 중국의 오제시대의 후기,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면 제요(帝堯)시대에 단군왕검이 아사달이란 지역에서 건설한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국가라 말할 수 있다.

41) 귀다순·장성더(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상』, 동북문화재단, p.381.

42) 상동서, p.410.

43) 상동서, p.378.

44) 상동서, p.416.

2.3.4. 고조선의 정치적 중심지와 그 변천 과정

『삼국유사』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아사달이라 불리던 지역에서 ‘조선’이란 국가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면 그 아사달이란 지역은 어디인가? 이병도, 김정배, 윤내현 등을 비롯한 기존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동강 유역인 평양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홍산문화권 내에서 문물이 가장 번성했던 곳은 우하량 지역으로 추정된다. 우하량 유적으로부터 50km 떨어진 곳에는 홍산문화권 내에서 가장 원시적 대형 제단으로 판명된 동산취(東山嘴)유적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우하량 유적지의 대표적 유물들은 신석기시대 말기인 기원전 3500년경 이후에 이루어진 대형제단(大型祭壇), 여신묘(女神廟), 적석총군(積石塚群)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 일대에서 단군왕검이 ‘단군조선’을 건설했다고 하는 논거는 우선 그 일대가 신시(神市)로 명명될 수 있고, 다음으로 여신묘가 있으며 또 그곳에서 곰의 형상을 취한 각종 유물들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단군왕검이 웅녀로부터 태어났다는 단군조선의 개국신화를 믿었던 부족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왕검이 요임금 원년에 “아사달을 도읍으로 해서 ‘단군조선’을 세웠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의 ‘아사달’이란 말은 한자로 표현하면 ‘朝陽’(아침 해 : 아침 해가 뜨는 작은 산)이란 뜻이다. 그런데 현재 중국어로 ‘朝陽’이라 불리는 지역이 우하량으로부터 100km 이내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요서의 서북지역으로부터 청동문화가 요서지역에 전파되어 그 지역에 전기 청동기시대(2500~1200, BC)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이미 초기부터 요서의 북·중부로부터 서서히 요서지역 남단의 난하 하류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그러한 현상은 중원지역에서 기원전 2070년경(『史記』「夏本紀」) 하왕조가 건설되기 약 3세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요서의 전기 청동기문화가 황하유역과 화북지역으로 남진해 나갔다. 또 오아시스로를 통해 서아시아의 청동기문화가 중아시아와 천산산맥, 내몽골, 황하의 서하를 동남진해서 중원지역에서 부딪힘에 따라 그곳에서 하왕조가 건설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3세기 후에는 하나라의 동쪽지역에서 상왕조(商王朝, 1766~1122 경, BC)가 건국되었다. 또 그 시점에서 조양일대에서 거주하고 있던 ‘단군조선’의 후예들은 난하 하

류지역 근처의 ‘백악산’(白岳山)의 ‘아사달’이란 지역으로 천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난하 하류지역의 주변이 중국어명 ‘朝鮮’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 무렵부터로 고찰된다.

그러나 상주(商周)의 교체기에 와서 중원지역으로부터 기자와 같은 구상(舊商)의 유민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오자, 다시 ‘단군조선’은 그의 정치적 무대를 요서의 옛 수도 조양(朝陽)지역,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양의 동북쪽에 위치한 장당경(藏唐京), 즉 지금의 부신(阜新)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단군조선’의 정치적 세력들이 전부 난하 하류지역을 떠났던 것은 아니었다. 그 일파는 난하 하류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 지역에 도착한 중국의 주나라 세력들은 난하 하류 지역에 잔류해 있던 ‘단군조선’의 일파를 일명 ‘고죽국’이라 불렀고, 또 기자가 난하 하류의 ‘단군조선’지역에 세웠다고 하는 나라를 ‘기자조선’이라 불렀다. ‘단군조선’은 대릉하와 요하 사이의 장당경으로 천도하고 북상한 맥족과 남하한 예족이 다시 한 번 더 결합해 그곳을 중심으로 예맥조선을 건국하였다. 우리가 ‘단군조선’의 건립 시점에서 행해졌던 서의 맥족과 동의 예족 사이의 결합이 제1차적 결합이었다고 한다면, 예맥조선의 성립 시의 그들 사이의 결합을 제2차적 결합이라 말해볼 수 있다.

『관자』의 『소광편』(小匡篇)에는 기원전 664년 “제 환공이 진공을 구하면서 적군의 왕을 사로잡고 호맥(胡貊)을 패퇴시켰으며 도하를 깨트려 기마오랑캐를 비로소 복종시켰다”라는 문장이 있다. 여기에서의 ‘호맥’은 고죽국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서 손진기는 ‘호맥’을 동호(東胡)로 보고 있으나, ‘호맥’을 고구려로 보는 자도 있다⁴⁵⁾. 『사기』의 『흉노열전』에는 『연나라의 현장 진개는 흉노(胡)에 인질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들의 신뢰를 받았다. 그 후 연나라로 돌아온 후 그는 군대를 이끌고 동호를 습격하여 패주시켰다. 이때 동호는 1000여 리나 후퇴하였다. ---연나라는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는 장성을 쌓고 상곡(上谷), 어양(漁陽), 우북평(右北平), 요서(遼西), 요동(遼東)의 여러 군들을 두어 호(胡)를 방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⁴⁶⁾ 연나라의 진개는 연소왕대(311~279,

45) 손진기 저·임동석 역(1992) 『동북민족원류』, 동문선, p.222.

46) 정법진외 역(1995) 『사마천 사기 6 : 史記列傳 中』, 까치, p.801.

BC)의 장군이었다.

이렇게 볼 때 주 초부터 지금의 부신(阜新)지역 근방에 위치해 있던 예맥조선은 진개의 동방 공격 당시 요하 지역 동쪽으로 밀려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무제는 난하 하류에 그 정치적 중심지를 두고 있던 위만조선을 기원전 108년에 멸망시키고, 이어서 당시 대릉하와 요하 유역 사이에 위치해 있던 예맥조선을 그 다음해인 기원전 107년에 멸망시킨 다음 그곳에 현도군을 세우게 된다.⁴⁷⁾ 그렇게 해서 『단군조선』도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다.⁴⁸⁾ 그러자 『단군조선』의 왕족의 주류는 그것이 최초로 건설되었던 조양의 아시달로 돌아갔고, 그 일부는 요하지역 북부와 동부 그리고 한반도의 대동강지역 등으로 남하했던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고찰해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한무제에 의해 멸망되기 이전 예맥조선이 기자조선과 남북으로 인접해 요하지역에 공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기』의 『화식열전』(貨殖列傳)에는 “연(燕)은.....(중략).....북으로는 오환(烏桓)·부여(夫餘)와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예맥(穢貊)·조선(朝鮮)·진번(眞番)과 맞닿아 있어 그 나름의 이로움이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이야 말로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입장의 구체적 논거가 될 수 있다.

2.3.4. 기자조선의 천도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대부분의 한국인 학자들은 기자조선의 실체를 인정하

47) 후한 반고(반고 : 32~92)의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에 의하면, 현도군은 고구려현(高句麗郡)·상은대현(上殷台郡)·서개마현(西蓋馬郡)으로 되어 있다. 고구려이다. 왕망 때는 하구려(下句麗)라 했다. 유주에 속해 있었다. 응소는 옛날의 진번(眞番)이고 조선호국(朝鮮胡國)이라 했다.

48) 흉노제국의 최대의 판도는 목돌선우대(209~174, BC)였다. 당시 그 판도는 동으로는 만주 지역(熱河 : 灤河) 북으로는 바이칼 호·예니세이강, 서로는 아랄해(동 투르크스탄), 남으로는 위수(渭水)·오르도스·티벳 고원까지였다. 『사기』의 『흉노열전』에는 목돌시대에 “모든 좌방(左方)의 왕과 장(將)들은 동쪽에 살며 상곡군에서부터 동쪽을 맡아 예맥(濊貊)과 조선(朝鮮)에 접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정범진의 역『사마천 사기 6 : 史記列傳 中』, 까치, 1995, p.805]. 이어서 그 『흉노열전』의 『오유선우 대』(114~105, BC)에 대한 기술부분에는 “한나라는 양신(楊信)을 흉노에 사신으로 보냈다. 당시 한나라는 동쪽으로는 예맥(濊貊), 조선(朝鮮)을 정복하고 이를 몇 개의 군으로 만들었고, 서쪽으로는 주천군(酒泉郡)을 두어 흉노와 강(羌)과의 통로를 끊고 있었다”[상동서, p.827]라는 문장도 발견된다.

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분야의 대표적 학자들 중 윤내현이라든가 최근에 작고한 천관우 등은 기자조선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필자도 기자조선의 실체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자조선의 천도를 중심으로 그것의 실체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주 초기에 옛 상나라 사람인 기자의 일군이 동진해 와서 자리를 잡게 된 곳은 당시 ‘단군조선’의 정치적 중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난하 하류지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난하 하류의 영평부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그 후 그 지역은 근 일천여 년 간 기자조선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던 것으로 고찰된다. 그러나 기원전 281년에 와서 연의 진개의 침입으로 기자조선은 난하 하류에서 요하 하류의 험독(險瀆)이라는 지역으로 천도했던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그 후 기원전 256년 주(周)가 멸망하고 기원전 221년 진(秦)에 의해 전국이 통일되었고, 이어서 기원전 204년 한(漢)에 의해 재통일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자조선은 다시 정치적 중심지를 난하 하류의 동부 유역으로 옮겼다. 그러나 그 직후 연나라 사람 위만이 기원전 195년에 당시 난하 하류 동부 유역을 정치적 중심지로 하던 기자조선을 멸망시킨 다음, 그 난하 하류 쪽의 왕검성(王儉城)이란 지역에 위만조선을 건설했다. 그러나 한무제는 기원전 108년에 왕검성을 수도로 하고 있던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후 그 지역에 낙랑군 등 한사군을 설치했다.⁴⁹⁾

그런데 이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치는 입장들이 있다. 그 대표자가 천관우이다. 그는 “‘朝鮮’이란 명칭이 난하 하류에 있었던 것은 두 차례에 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은말 주초에 산서성 태곡(太谷)지역을 떠난 기자족이 동진하여 한반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난하 하류의 ‘朝鮮’(孤竹國 지역)을 경유, 혹은 일시 거주한 일이 있다. 또 하나는 한무제가 기원전 108년에 대동강 하류에 설치한 낙랑군의 ‘朝鮮縣’이 서기 313년에 고구려의 공격으로 패망해 결국 그 잔존세력이 대릉하(大凌河) 방면으로 옮겨갔고, 또 그것이 다시 432년 혹은 그 직후에 난하 하류로 옮겨가 556년까지 약 120년 동안 존속한 것이 그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해⁵⁰⁾, 난하 하류에 남아 있는 ‘낙랑’의 흔적을 설명하고 있

49) 윤내현(1999) 『고조선-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민음사, p.306.

50) 천관우(1991) 『古朝鮮史 · 三韓史 研究』, 일조각, p.134.

는 것이다.

그러나 윤내현의 경우는 기자조선의 천도를 난하의 하류지역에서 시작해 요하 하류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난하 하류지역으로 다시 이동했다는 입장을 취했지만,⁵¹⁾ 이에 대해 천관우의 경우는 난하 하류에서 시작해 요하 하류를 거쳐 대동강 유역으로 천도했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이 기자조선의 천도문제는 그것의 마지막 천도지가 어디였느냐에 따라 낙랑군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느냐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상 현재 한국의 고대사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낙랑군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자조선의 천도 문제는 예맥조선의 실체 파악과 관련해서 한국의 고대사연구에 핵심적 연구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Ⅲ. 결론

필자는 본고를 통해 ‘고조선’의 실체성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내셔널리즘적 시각이나 리저널리즘적 시각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리즘적 입장을 취해 남쪽의 황하문명, 중앙아시아의 알타이 문명,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문명 등과 관련지어 요하문명을 배경으로 성립된 ‘고조선’에 대한 실체적 규명을 시도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필자는 우선 그 실체적 규명을 위한 일차적 작업으로서 한국에서의 ‘고조선’ 연구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고조선’이 성립된 요하 지역은 선고대는 말할 것도 없고 고대의 초기 청동기 시대에까지 북방 초원로의 동쪽 종착지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해안로를 통한 남진 문화와 북진 문화의 충돌지역이기도 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고조선’에 대한 실체를 규명함에 있어 글로벌리즘적 시각에 입각하여 ‘고조선’의 성립을 고찰했다. 끝으로 필자는 민족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고조선’의 전기에 해당되는 ‘단군조선’의 성립 경위를 고찰하였고, 또 ‘단군조선’의 천도 과정에 대

51) 윤내현(1998) 『고조선-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민음사, p.312.

한 고찰과 그것과 관련된 ‘기자조선’의 천도에 관한 고찰 등을 통해 ‘단군조선’의 실체를 규명했다.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지역, 중앙아시아의 알타이지역 등으로부터 초기 청동기문화가 전파되어 그것이 요하지역에서 전기 청기문화(2500~1200, BC)로 정착되어 나왔다. ‘고조선’은 바로 그 과정에서 성립되어 나왔다. 민족적으로는 ‘고조선’이 알타이산맥·한가인산맥 이북의 바이칼 호·혹룡강·송하강 유역 출신의 곰 토tem 민족의 예족(穢族)을 선주민으로 하고, 남 시베리아에 위치해 있는 서아시아·알타이지역·몽골지역 등으로 연결된 북방 초원지대의 초원길을 통해 전파된 초기 청동기문화의 세례를 받아 형성된 맥족(貊族)을 침입, 지배세력으로 형성된 인간집단으로 고찰된다. 정치적으로는 그것이 서방 출신의 유목민인 맥족을 지배민족으로 하고, 수렵·어로민인 예족을 피지배민족으로 삼아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이 밝힌 바와 같이 전기 청동기문화가 형성된 기원전 2300년경을 전후해 건립된 고대국가로 고찰된다.

‘고조선’은 전기의 ‘단군조선’과 후기의 ‘예맥조선’으로 양분되어 파악될 수 있다. 전기의 ‘단군조선’은 대동강 유역의 평양 지역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요서의 대릉하(大凌河) 상·중류지역에 위치한 조양(朝陽: 아사달) 일대에서 출현한 정치적 단체로 파악된다. ‘단군조선’을 일으킨 맥족은 요하의 서쪽 상류지역을 흐르는 시라르렌강을 따라 요서지역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적봉(赤峰)지역을 통해 다시 남쪽의 대릉하 중류로 남하했다. 그들은 대릉하 상류의 우하량 유적지 인근에서 거주하던 곰을 숭상하는 부족을 기반으로 해서 조양 일대에서 ‘단군조선’이란 부족연합국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조양 일대가 ‘단군조선’의 첫 번째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다. 그 후 그것은 중원에서 하(夏: 성립 2070년경)가 설립되기 이전에 요서의 난하 하류의 백악산(白岳山)지역으로 남하했던 것으로 고찰된다. 그 후 ‘단군조선’은 중원지역에서 기원전 18세기경에 요하지역으로부터 남하한 동이족에 의해 건국된 상왕조(商王朝, 1766~1122, BC)와 장기간 남북으로 병립해왔다. 그러다가 상이 서아시아로부터의 철기문화의 전파를 배경으로 중원지역에서 출현한 화하족(華河族)의 공격으로 무너졌다. 화하족은 상왕조를 무너뜨리고 주왕조(周王朝, 1122~256, BC)를 일으켰는데, 중원문화는 그것을 계기로 요하지역으로 북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단군조선’은 다시

그의 원래 지역이었던 조양 지역 인근의 장당경(藏唐京), 즉 지금의 부신(阜新) 지역으로 그 정치적 중심지를 이전시켰다. 그러한 정치적 중심지의 이동을 계기로 '고조선'은 '단군조선'에서 '예맥조선'으로 전환해 나왔다. 그러한 전환은 맥족을 지배층으로 한 '단군조선'의 정치적 중심지가 원래 예족이 거주했던 대릉하 중류와 요하 중류 사이에 위치해 있던 장당경 지역으로의 북상을 계기로 행해진 것이었다. 예맥조선은 그 지역에서 난하 하류지역의 기자조선과 근 10세기 가량 대치하였다. 그러다가 그것은 결국 한무제에 의해 기자조선의 후신인 위만조선이 멸망한 그 이듬해 107년에 멸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고조선'은 요서지역에서 전기 청기문화가 형성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단군조선'의 형태로 기원전 2300년경에 요서의 대릉하의 상·중류 지역에서 출현해 나왔고, 또 그것은 중원지역에서의 상주교체가 이후에는 대릉하 중류와 요하 중류 사이의 장당경 지역에서 '예맥조선'로 전환해 나와 난하 하류의 기자조선과 대치해 왔던 것으로 고찰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채수(2012) 『고대 메소포타미아문명과 고조선』, 『동북아문화연구(제31집)』(2012), 동북아문화학회, pp.149~150.
- 김채수(2010) 『고대 동아시아삼국의 서역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동북아문화연구(제24집)』(201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433~444.
- 김채수(2011) 『일본의 『고사기』신화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신화』, 『일본문화연구(제40집)』(2011), 동아시아일본학회, pp.155~156.
- 김채수(2012) 『고대 알타이문명과 일본 천황가』, 『일본문화연구(제42집)』(2012), 동아시아일본학회, pp.131~132.
- 김정배(2010)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324, p.513.
- 김정배 편저(2010) 『[증보]한국고대사 입문』, 신서원, p.35.
- 귀다순·장성더(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상』, 동북문화재단, p.378, p.381, p.410, p.416, p.546.
- I.V.몰로딘(1995) 『청동기시대』, 『알타이문명전』, 국립중앙박물관, p.40.
- 박대재(2010) 『箕子 관련 商周青銅器 銘文과 箕子東來說』, 『先史와 古代 32』, 한국고대학회, p.143.
- 복기대(2002)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백산자료원, p.67, p.68.

- 손진기 저, 임동석 역(1992) 『동북민족원류』, 동문선, pp.86~87, p.222, p.227, p.235, p.236.
- 우실하(2007)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 소나무, p.125, pp.266~267.
- 윤내현(1998) 『고조선-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민음사, p.306, p.312.
- 이종호·이형석(2009) 『고조선, 신화에서 역사로』, 우리책, p.57.
- 이춘식(1986) 『중국고대사의 전개』, 예문출판사, pp.27~28.
- 정범진의 역(1995) 『사마천 사기 6 : 史記列傳 中』, 까치, p.801, p.805, p.827.
- 정수일(2001)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 p.50.
- 조범중(2010) 『단군과 고조선』, 『한국고대사입문』, 신서원, p.221.
- 천관우(1991) 『古朝鮮史 · 三韓史 研究』, 일조각, 중판, p.134.
- 岡正雄(1979) 『異人その他』, 三陽社, p.43.
- 佐原真(1980) 『農業の 開始と 階級社会の 形成』, 『岩波講座 日本歴史 1』, 岩波書店, p.119.
- 近藤春雄(1987) 『中国学芸大事典』, 大修館書店, p.131.
- 靳楓毅(1982) 『論中国东北地区含曲刃青铜短剑的文化遗存』, 『考古学报』.
- 韓建業(2007) 『新疆的青銅器時代和早期鉄器時代文化』, 文物出版社, pp.7~8.

- ❖ 투고일 : 2012.06.30
- ❖ 심사일 : 2012.07.24
- ❖ 심사완료일 : 2012.08.06